

고려시대 궁중의 식생활에 대한 고찰 -연회식과 의례식을 중심으로-

한복진·정라나*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부 전통음식문화 전공, 연세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A Study of Royal Dietary Culture in Koryo Dynasty

Bok-jin Han and Lana Chung*

Dept. of Traditional Food Culture, Jeonju University

Dept. of Food & Nutrition, Yonsei University*

Abstract

In the early years of the Koryo dynasty(877~1392), the grain production was encouraged and the consumption of meat was abstained because of the Buddhism. Therefore, desserts including rice cakes and cookies and teas were prevalent. Specially, the cooking skill of the desserts was highly developed because the desserts were the requisite offered in Buddhist service and national ceremonies. Also, the king took the lead in abstaining to eat meat. According to 『Koryodokyung』, people in the early years of the Koryo dynasty were unskilled to slaughter for serving meat to the envoy from China. Most ceremonies in Koryo dynasty were held for retainers by king and the ceremonies held to celebrate the coronation, birth of the royal grandchildren, and royal birthday, and to treat the envoys and merchants from China(Song dynasty) and Tamra kingdom. The ceremonies were continuously held from the early year to the later year of Koryo dynasty. The aristocracy of the Koryo dynasty often held the extravagant ceremonies and drank liquor a lot in the ceremony and offered the extravagant foods such as oil-and-honey pastry and milk, which caused the national problem later. The royal religious ceremonies held often in the Koryo dynasty were ancestor worship ceremony, tea ceremony, lotus lantern ceremony, Palgwanhoe, etc. In Koryo dynasty, there were several government offices that took charge of royal dietary culture as follows:

1. Yomulgo (料物庫) - government office supplied with provisions
2. Sasunseo(司膳署) - government office that took charge of various kinds of side dishes
3. Saonseo(司醞署) - government office that took charge of wine and liquor
4. Naejangtaek(內莊宅) - government office managed paddy fields and dry fields owned by royal family
5. Sangsikguk(尙食局) - government office same as Sasunseo that took charge of various kinds of side dishes, the name changed to Sasunseo later
6. Sungwanseo (膳官署) - government office that took charge of foods for various religious services and ceremonies
7. Naewonseo (內園署) - government office that took charge of the garden

Key words : royal dietary culture, Koryo dynasty, sacrificial rituals(祭禮), tea ceremony(茶禮), Youdunghoe(燃燈會).

I. 서론

삼국시대에 자리잡은 식생활 문화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통일 신라는 보다 화려하고 격조 있는 식생활 문화를 전개하였지만 이는 왕족과 귀족층 일부로 제한되었으므로 음식문

화의 저변적인 확대를 기하기에는 미흡하였다고 본다.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식생활 문화의 구조가 확대되어 음식의 격조가 널리 파급될 수 있었다.

후고구려의 궁예를 쫓아낸 신하들의 추대를 받고 왕위에 오른 왕건은 신라를 흡수하여 나라이름을 고려라 하고(918)

민족통일을 이룩하였다. 왕건은 호국안민을 빌기 위하여 불교를 독실하게 믿고, 이를 권장하는 한편 유교사상을 정치이념으로 삼았다. 따라서, 유교와 불교가 양립하는 가운데 농업을 장려하여 식품재료 생산에 전력을 기울였다(이성우 1978).

『고려도경(高麗圖經)』은 송나라 사신 서경(徐兢)의 고려기행록으로 인종 원년(1123)에 1달간 개경에 체류하면서 쓴 전문기이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풍속이 쓰여 있는데 특히 식생활사에 관련된 풍속으로는 고려인들의 식이풍속·고려의 토산·종교풍속·차풍속·기명·향음 등이 자세히 나오므로 고려시대 식생활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고려시대에 어선(御膳)을 담당한 관아는 사선서(司膳署)이고 술은 사온서(司醞署)에서 담당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이 업무를 사옹원이 계승하였다. 왕조가 바뀌어도 궁중의 식생활 담당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등회와 팔관회는 고려의 국가의례를 편제하고 있는 『고려사』 예지(禮志)에 가례(嘉禮) 잡의(雜儀)로 분류되어져 그 실행의 구체적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단순히 불교 의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려의 국가의례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행사임을 시사한다(윤서석 1999).

궁중음식이라 하면 대개 사료가 조선왕조에 국한되어 있어 그 이전의 왕권 국가인 고려와 삼국시대의 자료가 부족한 편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조선왕조 궁중음식의 연구에 앞서서 선왕조인 고려왕조의 식생활을 밝히는 것이 필연적으로 보였다. 현재까지 고려시대의 궁중의 식생활에 대한 학계의 보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지만, 고려의 궁궐 자체에 대하여는 김(김창현 1999, 2001, 2002a, 2002b)의 다수의 보고가 있고, 고려시대에 가장 큰 국가적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에 대하여는 안(안지원 1999)과 김(김형우 1994) 등의 보고가 있으나 궁중의 실질적인 식생활이나 식품관련 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고려왕조의 식생활 문화에 총체적 고찰 자료로는 부족하지만 필자는 우선 본고에서는 『고려사』, 『증보문헌비고』, 『고려도경』 등의 기록을 중심으로 단편적이고, 부분적이지만 고려시대 궁중의 식생활 문화 중에서 연회식과 의례식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고려 상류층의 식생활 개관

고려는 초기부터 토지의 개간과 수리시설의 확충 및 세계 개혁을 실시하여 양곡 증산에 주력하였는데, 한편으로는 불교를 국교로 선포하여 숭불 환경에서 육식이 절제되었다. 이

런 환경에서 병과류와 음차의 풍습이 성행하였는데 특히 병과류는 연등회, 팔관회 등 불사를 위한 국가 행사와 혼례, 각종 잔치의 필수 음식으로 숭상되었으므로 조리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였다(윤서석 1999).

고려 시대에는 하루에 세 번 식사를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춘추공이 삼국을 통일한 후에 식사 회수를 3회에서 2식으로 줄였고, 『고려사』 공민왕 9년(1360)에 가문이 심하여 하루에 2식으로 줄었다고 하였으며, 『고려도경』에는 사신에게 하루에 차를 3번 내놓았다. 이들로 미루어 적어도 상류층은 삼국시대에 1일 3식이었던 것이 통일신라시대에는 2식이 되었다가 고려시대에 다시 3식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이성우 1978). 일상식의 식단은 신분의 귀천, 종교의 차이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를 알 수 있는 문헌은 거의 없다. 고려사 공민왕 9년(1360)에 가문이 심하여 왕은 하루에 2식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고려 시대의 주식과 찬물은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고려 초기에는 국속이 사전(私田)을 가질 수 없고 판리나 민병(民兵)에게 등급의 고하에 따라 나라에서 내려주었다. 곡물은 쌀알이 특히 크고 맛이 달고, 황량(黃粱)·흑서(黑黍)·한속(寒粟)·참깨(胡麻)·보리·밀 등으로 주식으로 삼았다. 육류 찬물로 쓰이는 양과 돼지가 있지만 왕궁이나 귀인이 아니면 먹지 못하였고, 가난한 백성들은 해산물을 많이 먹었고, 미꾸라지·전복·조개·진주조개·왕새우·문합·붉은 게·굴·거북이 다리·해조·다시마는 귀천없이 잘 먹었다(고려도경 1977).

고려 초기에는 왕이 출전하여 육식을 삼갔고 또한 도살을 좋아하지 않고 도살전문업자가 없어서 도살법이 아주 서툴렀다. 『송사(宋史)』 고려조에 “살생을 싫어하여 도재(屠宰)를 하지 않는다. 양이나 돼지(豕)를 먹고자 하면 이것을 짚으로 싸서 불 위에 던져서 굽는다”고 하였다(이성우 1978). 『고려도경』에는 ‘고려는 부처를 좋아하고 살생을 경계하기 때문에 국왕이나 상신(相臣)이 아니면 양과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였다.’라 하고, 사신이 오면 도살을 하는데 “양·돼지를 길렀다가 이를 잡을 때 네 발을 묶어 타는 불 속에 던져, 그 숨이 끊어지고 털이 없어지면 물로 씻는다. 만약 다시 살아나면 몽둥이로 쳐서 죽인 뒤에 배를 갈라 장위(腸胃)를 다 끊고, 똥과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 비록 국이나 구이를 만들더라도 고약한 냄새가 없어지지 아니하니 그 즐렬함이 이와 같다.”고 하였다(고려도경 1977).

원종 2년(1275)에는 각 지방의 안찰사에게 “왕은 스스로 인자한 마음씀을 금수(禽獸)에까지 미쳐야 한다. 그러니 고기 음식을 내외지 않도록 하라”는 논지를 보냈고, 성종 7년, 문종 20년, 예종 2년, 충숙왕 2년 등에 소도살 금지령을 내렸다. 이같이 금령이 여러 차례 있었음은 오히려 도살하는 경

우가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육식에 대한 절제가 독려되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윤서석 1999). 그러나 고려 중기 이후에는 육식 선호 풍조가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몽고의 지배하에 들고난 말기에는 주로 회회인(回回人)들이 도살을 하였고, 육회·고기구이·고기볶음·설렁탕 등의 육류 음식이 많이 먹게 되었다.

고려시대에 왕가에서는 얼음을 저장해 두었다가 여름철에 신하들에게 정기적으로 배급하는 제도가 있었다. 『고려사』 정종 2년(1036)에 17명의 신하들에게 10일에 한번씩 얼음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고려사』 열전 최이(최충헌의 아들)가 강화도 태서산에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얼음을 저장하니 백성들은 한없이 괴로워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충렬왕 3년(1297)에는 모든 사람이 얼음을 이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이성우 1978). 이처럼 얼음을 이용하여 음식을 상하기 않도록 냉장방법이 일반에까지 파급되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중국의 새로운 솜씨를 본받고 좋은 도토(陶土)와 연료가 개발되어 자기(瓷器)의 품질이 크게 진보하고 그 종류와 형태가 부쩍 늘었다. 자기 가운데 가장 고상하게 치는 것이 청자(靑瓷)이고 이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은 오월(吳越)에서 만든 비색(秘色)이라고 한다. 고려에서는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연구를 쌓아서 천하 최고 수준의 청자를 만들어 내니 『고려도경』에서 이 빛깔을 비색(翡色, 비취색)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표면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기고 오목한 자리에 백토 또는 적토 또는 주사(朱砂)를 난으로 박고 다시 그 위에 고운 유약(釉藥)을 발라서 구워낸 것이 고려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상감청자이다(이성우 1978). 이처럼 우수하고 화려한 고려 청자를 통해서도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식생활을 일면을 엿볼 수 있다.

2. 고려의 연회식

1) 연음(燕飮)

『고려도경』 연음(燕飮)과 헌수(獻酬)조에 연회장에는 “연음에 예에 쓰는 장식과 장막 등속을 다 광채가 나고 화려하다. 대청 위에는 비단 보료(錦茵)를 펴 놓았고, 양쪽 행랑(緣席)에는 단을 두른 자리를 깔았다. 그 술은 맛이 달고 색깔이 짙는데 사람을 취하게 하지는 못한다. 과일과 채소는 풍성하고 살졌는데 대부분 껍질과 씨를 제거하였고, 안주에는 양고기와 돼지고기로 만든 좋은 안주가 있기는 하지만 해물 음식도 더 많다. 탁자의 표면에는 종이로 덮었는데 청결함을 취한 것이다. 기명(器皿)은 대부분 금도금이나 은도금 한 것을 썼고, 푸른색의 도기를 값진 것으로 친다.” 라고 연회장 모습이 아주 화려하게 그려 있다(고려도경 1977).

고려시대에 궁중에서 개최한 연회를 『고려사』, 『증보문헌비고』 등의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 Table 1.과 같다.

고려 궁중에서는 잔치를 설행한 연유는 대부분 신하를 위하여 왕이 베푼 잔치인데 특히 왕의 즉위, 전쟁에서의 승리, 왕손 탄생, 왕의 탄일 등의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정전(正殿)이나 천덕전, 건덕전, 청연각 등에서 잔치를 베풀고, 서경(西京)이나 지방에 거둥하였을 때 신하들이나 그리고 송나라나 탐라 등에서 온 사신이나 상인을 대접하려고 잔치를 개최하였다. 불교를 중시하는 국가이므로 왕이 절에 거둥하거나 연등회에 참석하여 베푼 잔치들이 있었다. 연례는 고려 조조기부터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고르게 개최되었으며, 설행연유가 다양하다.

한편 의종(毅宗) 조(1147-1170)에 상정(詳定)한 대관전(大觀殿)에서 신하들에게 잔치하는 의식(증보문헌비고 제76권)을 살펴보면, “화안(花案)을 설치하고 장위(仗衛)를 진열하며 임금은 자황포를 입는다. 명편(鳴鞭)하고 풍악을 시작하면 장위가 산호(山呼)를 아뢰고, 태자(太子) 이하가 절하며 춤추고 뛰면서 성군(聖躬)의 만복(萬福)을 아뢰고, 치사(致詞)한다. 태자와 상공(上公)이 전(殿)에 올라가서 태자가 꿇어앉아 아뢰기를, “신(臣) 아무개 등은 엎드려 아무 절일(節日)을 만나니, 신 등은 크게 경사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천만세(千萬世)를 축수(祝壽)하는 술을 올립니다.” 하고 술잔을 받들어 올리면, 임금이 술잔을 받아들고 풍악이 시작된다. 태자와 상공이 내려오면 전교를 선포하기를, “경 등의 축수하는 술을 들면서 경 등과 더불어 경사를 같이 한다.”라고 한다. 인하여 자리에 나오게 하여 차(茶)를 내려 주고 술을 돌린다. 어식(御食)을 올린 다음에 태자 이하의 음식을 차리고 풍악을 시작하며 어주(御酒)를 올린다. 교방(教坊)이 치사(致詞)하는 말과 구호(口號)를 하며, 삼미(三味, 세 가지 음식)가 이르면 임금이 편차(便次)에 들어가서 꽃을 머리에 꽂고 태자 이하도 꽃을 머리에 꽂는다. 임금이 전에 앉으면 태자가 꿇어앉아서 아뢰기를, ‘천수(天壽)를 올립니다.’ 한다. 태자가 술잔을 받들어 올리고 공·후·백(公侯伯), 재신(宰臣), 추밀(樞密), 양반(兩班 동반·서반) 3품과 시신(侍臣)이 차례로 헌수(獻壽)한다. 회사(廻賜)하는 별잔(別盞)을 전하면 태자 이하가 술잔을 받는다. 시립(侍立)한 원장(員將)과 악관(樂官)에게 화주(花酒)를 선사(宣賜)하고, 문(門)을 파수(把守)하는 군인에게도 주과(酒果)를 선사하면 서로 차례로 어주(御酒)·어식(御食)을 올리고, 군관(群官)이 술을 돌리며, 음식을 차려 준다. 팔미(八味) 뒤에 탕약(湯藥)을 올린다. 군관에게 약(藥)을 내려 주고 임금이 편차로 들어간다. 임금이 전에 앉으면 또 수주(壽酒)를 올린다. 술을 올리고 음식을 올리며, 약을 올리고, 군관이

Table 1. The Feast of Koryo Dynasty

개최연월	장소	연회참석자	비고
광종 15년(964) 3월	천덕전(天德殿)	여러 신하들	잔치하였다.
성종 2년(983) 1월	천덕전	여러 신하들	잔치하였다.
목종 원년(997)	-	-	큰 포연을 하룻동안 내려주었다.
현종 6년(1015) 3월	서경(西京) 장락궁(長樂宮)	여러 신하들	거둥하여 잔치하였다.
현종 10년(1019)	명복전(明福殿)	강감찬(姜邯贊)등 장수(將帥)들	개신 축하연으로 임금의 영파역에서 친히 맞이하여 잔치하였다.
덕종 3년(1034)	문덕전(文德殿)	유소(柳韶)등 신하	관성(關城)을 개척한 공을 위로하였다.
정종 원년(1034)	신봉루(神鳳樓)	백관들	법왕사(法王寺)에 거둥하였으며, 이튿날 대회(大會)하고 또 포연을 내려 주었고 악(樂)을 구경하였다. 중외(中外)에서 표문(表文)을 올려 진하(陳賀)하였다.
문종 7년(1053)	대동강(大同江)	여러 왕씨(王氏)와 재추(宰樞)	거둥하여 누선(樓船)을 타고 잔치하였다.
	-	상장군(上將軍)이상의 신료(臣僚)	누선을 타고 잔치하였다.
	-	효순(孝順)·의절(義節)·홀아비·과부·고아·자식없는 이	음식을 먹였다.
	장락전(長樂殿)	상참관(常參官) 이상	잔치하였다.
문종9년(1055) 한식(寒食)	오빈관(娛賓館)	송(宋)상인(商人)섭덕총(葉德龍) 등 87인	음식을 먹였다.
	영빈관(迎賓館)	황극(黃極)등 105인	음식을 먹였다.
	청하관(淸河館)	황조(黃助)등 48인	음식을 먹였다.
	조종관(朝宗館)	탐라국수령(耽羅國首領)고한(高漢)등 150인	음식을 먹였다.
선종 원년(1084)	회경전(會慶殿)	송(宋)나라 사신	잔치하였다.
선종 3년(1086)	-	신하들	왕태후(王太后)에게 책문(冊文)을 올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숙종 원년(1096)	동지(東池)	여러 신하들	배를 띄우고 술자리를 베풀어, 신하들과 연회에 베풀고 서로 같이 시(詩)를 지었다.
예종 4년(1109) 2월	중광전(重光殿)	신하들	잔치하고, 술이 취하자 춤을 추게 하였다.
예종 11년(1116)	서경 대동강	여러 왕씨(王氏)·재추(宰樞)·시신(侍臣)·서경유수(西京留守)·분사(分司)3품 이상	서경(西京)에 거둥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시연(侍宴)하였다.
예종 12년(1117) 6월	청연각	신하들	송(宋)나라 황제가 하사한 계향어주(桂香御酒)·용봉명단(龍鳳茗團) 좋은 차[茶]를 덩어리로 문친 것·진과(珍果)·보명(寶皿)을 사용하였다.
예종 12년(1117) 9월 9일	연흥전(延興殿)	신하들	잔치하다.
인종 2년(1124)	건덕전(乾德殿)	신하들	인종 탄일(慶龍節)에 잔치하고, 상참(常參)한 이상의 관원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하사하였다.
의종 3년(1149) 7월	청연각	여러 학사(學士)	잔치하였다. 이때에 임금이 군신(君臣)의 예(禮)를 생략하고 모두 취(醉)해서 파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상례(常例)가 되었다.
고종 46년(1259)	-	여러 왕씨(王氏)와 재추(宰樞)	연등회(燃燈會)에서 연회하였다.
충렬왕 3년(1277)	만월연(滿月宴)	-	제국대장(齊國大長)공주가 딸을 낳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충렬왕 14년(1288)	향각(香閣)	신하들	궁중의 꽃이 한창 피게 되자 연회하였다.
충렬왕 14년 8월	정전(正殿)	신하들	충렬왕 성절(聖節) 임금의 생일에 충선왕이 술자리를 베풀었다.
충목왕 원년(1344)	-	원(元)나라 사신	연회하는 데에 여악(女樂)을 쓰고 백관들이 꽃을 꽂았는데, 이름을 군신경회연(君臣慶會宴)이라고 하였다.
충정왕 2년(1350)	-	신하들	충정왕 탄일에 잔치하였다.
공민왕 11년(1362) 3월	상주(尙州)행궁(行宮)	출정하였던 장사(將士)	홍건적(紅巾賊)을 평정하였으므로, 크게 잔치하였다.
공민왕 21년(1372)	정릉(正陵, 노국공주의 능)	중친과 재추	공주의 영정을 대하여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으며, 호악(胡樂, 원나라 음악)을 연주하며 술잔을 주고받기를 생친과 같이 하였다. 신하들에게 모두 시연(侍宴)하였다.

술을 돌리고, 음식을 배푼다. 태자가 치사하고, 선사한 연폐(宴幣)를 전(傳)하면, 임금의 들어가고 풍악이 시작된다.” 하였으니, 이미 고려 중기에는 연회의 진행 순서와 헌수와 올리는 음식 등도 어느 정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말기로 갈수록 연회는 사치스러워졌다. 충렬왕 14년(1288) 탄일에 충선왕이 배푼 잔치에 술과 반찬을 성대하게 준비하게 하여 날마다 향락(享樂)하며, 화려하고 아름다운 다음을 다투어 극진하게 하니, 한 번 먹는 비용이 배(布) 3백 필에 해당하므로, 사람들이 매우 괴로워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고려도경』에서 송나라 사신들에게 배푼 연회에서 헌수(獻酬)의 예를 살펴보면 “왕과 정사·부사가 자리에 가사 앉고나면 왕이 개(介)를 보내어 정사와 부사에게, ‘몸소 일어서 술을 따라서 권해드리고자 합니다.’하고 고하게 하는데, 사자(使者)는 채삼 고사하고 나서야 그 말에 따른다. 각각 자리에서 물러나 일어서서 마주 읍하는 일이 끝나면, 집사자(執事者)가 정사의 술잔을 가지고 왕 앞에까지 온다. 왕이 기울어앉아 술준(奠)을 잡고서 술을 따르게 하면 집사자가 무릎 꿇음으로 앞으로 가져오고, 정사 역시 기울어앉아 술잔을 받는다. 끝나면 다시 잔을 집사자에게 주고 각각 자리로 돌아간다.

자리잡고 앉고 마시는 일이 끝나면, 일어나서 몸을 굽혀 마주 읍하고 간단히 사의(謝意)를 표한다. 왕이 친히 부사에게 술을 따라 주는데 그예는 정사와 같다. 정사와 부사가 왕의 잔을 받는 일을 끝내고 나서는 친히 술을 따라서 왕에게 회례하기를 처음의 예와 같이 하는데, 술이 세 차례 돌고서야 통상의 의례와 같이 한다. 술이 15차례 돌고서는 차(次)임시로 머물게 마련한 자리에서 중간 휴식을 취하고 잠시 후에 다시 자리에 나가 앉는다. 정사와 부사부터 그 아랫사람들에게까지 습의(襲衣, 겁에 입는 옷)와 금은대(金銀帶)를 각각 차등을 두어 선사하고, 술이 다시 10여 차례 돌고 밤중이 되어서야 파하는데, 왕은 정사와 부사가 궁전 문밖에 나갈 때까지 전송한다. 삼절(三節)의 사람들은 차례로 말을 타고 관사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2) 귀족의 연회식

고려시대의 귀족 특히 무신들의 식생활은 극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도경』에는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연회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고려인은 주례(酒禮)를 중히 여기며, 특히 성례(盛禮)를 좋아한다고 했다. 고종 때에 강화에 있는 무신의 집에서 호화로운 연회를 배푼 예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귀족들과 서민들이 연회나 행사에 유밀과와 우유 등의 사치한 음식의 유행이 지나친 소비성향을 조장하여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다. 『고려사』 형법2에는 명종22년

(1192)에 왕이 제하기를 “옛적에 어진 임금이 천하를 교화하는데 절검(節儉)을 숭상하고 사치를 배척한 것은 풍속을 순후(醇厚)하게 하는 까닭이었는데 지금의 세속은 부화(浮華)를 숭상하여 무릇 공사의 설연(設宴)을 다투어 더 좋게 하는 것은 자랑으로 생각하여 곡속(穀粟)을 쓰기를 니사(泥沙)와 같이 하고, 유밀(油蜜)을 보기를 찌꺼기와 같이 하여 헛되이 보기 좋게만 하므로 막대한 비용을 헤아리지 못하니 이제부터 유밀과를 쓰는 것을 금하고 목실(木實)로 대용되되, 소는 3기를 넘지 못하고, 중은 5기를 넘지 못하고, 대는 9기를 넘지 못하며, 찬도 또한 3기를 넘지 못하며, 만약 부득이하여 더하고자 할 때에는 포해(脯醢)를 섞어 내는 것은 정식으로 하고 영(命)과 같이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유사(有司)가 죄를 탄핵(彈劾)하라”고 하였다(이성우 1978). 이처럼 잔치상에 유밀과 등 많은 음식을 차리는 것을 왕명으로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고려사』 열전 최충헌 조에는 고종33년(1246)에 권신 최이(崔怡)가 왕을 위하여 배푼 잔치에는 육안상(六案床)을 차리고 칠보기(七寶器)가 진설되었다. 또 상위의 반찬(饋饌)이 풍부하고 그 사치를 극하여 최이 스스로가 자랑하여 말하기를 ‘다시 금일과 같은 날이 또 있으랴’고 하였다고 한다. 당시 권문의 잔치는 며칠씩 노래하며 취하기가 예사였고, 기악(伎樂)과 잡희(雜戲)가 성하여 미증유 상태였다 한다. 그리하여 상당한 지위를 가진 이까지도 스스로 처용희(處容戲)에 나가면 잡희·창우무(倡優舞) 등을 연출하기를 꺼리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고려사절요 권16). 그리고 최세연(崔世延)이 왕과 공주를 위한 잔치를 베풀 때 찬품을 너무 사치하게 올려서 왕이 상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고려사 세가).

온 고을 유생이 모여 향약을 읽고 술을 마시면 잔치하는 예절을 향음(鄉飲)이라 한다. 『고려도경』 향음 조에는 고려 상류층의 잔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에서는 주례(酒禮)를 매우 중하게 여긴다. 공회 때에는 왕부(王府)와 국관(國官)만이 상탁(牀卓)과 반찬(盤饌)이 있을 뿐, 그 나머지는 관리와 사민은 다만 좌탁(坐榻)에 앉을 뿐이다. --- 지금 고려인은 탁위에 또 소조(小俎, 작은 소반)를 놓고, 그릇에는 구리(銅)를 쓰고, 어포·육포·절인 생선(鱸膾)과 생선·나물 들 섞어서 내오되 풍성하지 않고, 또 주행(酒行)에도 절도가 없으며 많이 내오는 것을 힘쓸 뿐이다. 탐마다 두 손(客)이 앉을 뿐이니, 만약 빈객이 많이 모이면 그 수에 따라 탁을 늘려 각기 서로 마주 앉는다.”(고려도경 1977) 고 하였다.

3. 고려 궁중의 의례식

1) 제례

제사란 사람이 사람이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를 인식하고 그에게 또는 자기가 대표하는 집단의 복을 빌고, 화를 풀기 위하여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표시하는 예절이다. 예절이 끝나면 제사에 사용한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신인공식(神人公式)을 띠는 것이다.

『예기(禮記)』의 왕제에 의하면 왕실에서 종묘의 제사의 고물로서 소·멧돼지(豕)·집돼지(豚)·양·닭·개·꿩·토끼 등의 고기와 포(脯)·마른 생선(乾魚)·날 생선(鮮魚)·물·술·기장·차조·조·벼·부추·소금 등을 쓴다(이성우 1978).

우리나라 제사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것과 중국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 고려 때는 국가 대행사에 불교풍으로 크게 갖들게 되었다. 그러다가 고려 말기에 불교가 쇠퇴함에 따라 유교의 영향을 받아 중국식 제사를 중시하게 되었고,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는 주자가례의 성행에 따라 제사는 거의 중국식으로 되어버렸다(이성우 1978).

왕가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종묘의 제사가 가장 주가 된다. 『고려사』 예 길례(吉禮) 대사(大祀) 태묘(太廟)조에 나오는 제사식은 다음과 같다.

향전(享前) 3일에 제상에다 제기를 차려놓고 향일 미명(未明) 오각(五刻)에 태관령(太官令)이 재일(宰人)을 거느리고 난도(鸞刀)로 생(牲)을 잡고 축사(祝史)가 두(豆)에다 모혈(毛血)을 취하고, 또 간(肝)을 취하여 울창(鬱鬯)에 씻어 간료(肝膋)와 함께 두에 채워 각각 찬소(饌所)에 두고, 한편으로 생을 삶는다.

향일 미명 4각에 태묘령(太廟令)과 양온령(良醢令)이 각각 속원을 거느리고 들어가 존(尊)과 이(彝)를 채우는데, 유이(雥)는 명수(明水, 정화수)로 채우고 호이(虎鬯)는 울창으로 채우며, 희존(犧尊) 2개 가운데 하나는 명수를 채우고 하나는 뽕제(?泛齊, 찌꺼기가 떠오르는 薄酒)를 채우며, 상존(象尊) 2개 가운데 하나는 명수를 채우고 하나는 예제(禮齊, 즙과 지게미가 섞인 박주)를 채우며, 저존(著尊) 2개 가운데 하나는 명수를 채우고 하나는 양제(央齊, 백색의 탁주)를 채우며, 산뢰(山醴) 2개 가운데 하나는 현주(玄酒, 물), 또 하나는 청주(淸酒)를 채운다.

당하(堂下)의 호존(壺尊) 2개 가운데 하나는 명수, 또 하나는 제제(醴齊, 적색의 탁주)를 채우며, 태존(太尊) 2개 가운데 하나는 명수, 또 하나는 침제(沈齊, 맑은 술)를 채우고, 산뢰 4개 가운데 둘은 현주, 하나는 사주(事酒), 또 하나는 석주(昔酒)를 채운다.

태관령이 진찬자를 거느리고 두·변·보·궤(豆·籩·簠·簋)를 채우는데 변(籩)의 제1행은 소금(形鹽)·건어(魚鱸)·대추(乾棗)·울황(栗黃)·개암(榛子)·마름(菱仁)을 담고, 제2행은 가시연밥(茨仁)·사슴고기포(鹿脯)·떡(白餅)·수수떡(黑餅)·미

숫가루(糗餌)·인절미(粉糝)를 담는다.

두(豆)의 제1행은 부추김치(韭菹)·담해(醢醢)·청저(靑菹)·녹해(鹿醢)·근저(芹菹)·토해(兔醢)를 채우며, 제2행은 순저(筍菹)·어해(魚醢)·비절(脾折, 소의 처넵)·돈박(豚拍, 돼지갈비)·술떡(醢食)·갱죽(糝食)으로 채운다.

보(籩)는 벼(稻)·양(梁)을 채우고, 궤는 서(黍)·직(稷)을 채우며, 등(?)은 대갱(大羹)을 채우고, 형(銅)은 육갱(肉羹)을 채워 모혈(毛滑)을 가한다. 그리고 변의 남쪽 조(俎)는 생(牲)의 좌협반(左脇盤, 갈비의 날고기)을 얹고, 변과 두 사이의 조(俎)는 숙육반(熟肉盤, 익힌 고기)을 얹으며, 당하(堂下)의 2개는 존과 퇴의 서쪽에 있는데, 하나는 나유병(糯油餅)을 채우고, 또 하나는 편육(片肉)을 채운다. 무릇 신에게 공향(供享)하는 제물 중에서 당시에 구할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제물로 대치한다.”

그리고 『고려사』 지 예(禮) 언례(言禮)에는 소사(小祀)의 사대부와 서인 등 신분에 따라 제례의 찬품을 달리 정하고 있다. 신분이 1품에서 2품에 이르기까지는 소채(蔬)·과일(果) 각각 5첩, 고기(肉) 2첩, 국수(麵)·병(餅) 각 1기, 국(羹)·밥(飯) 각각 2기, 젓가락·숟가락·잔(盞) 각각 2개씩 마련한다. 3품에서 6품까지는 소채 3첩, 과일 2첩, 국수·떡·생선(魚)·고기를 각각 1기를 마련하고, 7품에서 서인으로 관(官)에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는 소채 2첩, 과일 1첩, 생선(魚)·고기를 각각 1기이고 숟가락 젓가락은 모두 위와 같고, 양위(兩位)를 함께 한 상에 차린다.

제사식이란 조상의 일상식과 특히 생전에 좋아하던 식품을 올리는 것이나 신분에 따른 일상식의 식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이성우 1978).

2) 다례(茶禮)

『고려사』 가례잡의(嘉禮雜儀)에 “상원일이나 연등일의 잔치에는 궁중의 다방(茶房)에서 과(果)를 차려 왕좌 앞으로 올렸다.”

중추 팔관회의 잔치에서도 다방에서 다과상(果案)을 차려 왕의 앞으로 올렸다. 왕이 대관전에 좌정하면 교방의 주악과 북이 울리는 가운데 군신이 왕에게 헌수를 올린다. 그 사이에 주악, 진차(進茶) 차를 올리는 예), 진식(進食) 음식을 올리는 예)이 이어진다(윤서석 1999).

그리고 고려의 음다례속(飲茶禮俗)을 『고려도경』을 통해 알 수 있다. “무릇 연회가 있을 때에는 에 나오는 정중(庭中)에서 차를 끓이고 차사발은 연꽃잎(銀荷)으로 덮는다. 그리하여 차를 손님 앞에 가져올 때에는 매우 천천히 걸어서 가지고 온다. 접대원이 말하기를 “차가 고루 손님 앞에 돌아간 다음에 드십시오”라고 한다.

다례 때 관(館) 안에 홍조(紅俎) 즉 붉은 옷칠을 한 탁자에 다구(茶具)를 늘어놓고 그 위를 홍사(紅紗)보자기로 덮어둔다. 하루에 세 번씩 차를 내오고 이어서 뜨거운 물을 내오는데 고려사람들을 이것을 약(藥)이라고 한다. 객이 그 차를 다 마시면 기뻐하고 다 마시지 않으면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여 불쾌한 표정을 지으므로 항상 억지로 차를 마시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은 음차풍속을 잘 그려져 있는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식은 차를 마시는 다도가 기록되었다(이성우 1978).

3) 연등회(燃燈會)

연등회는 고려 시대 개설되었던 각종 불교 행사 가운데 팔관회와 함께 전국적 규모로 성행되어졌던 대표적인 불교 행사로 일종의 불교 법회(法會)이다. 소회일(小會日:음력 1월 14일)과 대회일(大會日:정월 대보름)이 있어, 왕궁·서울·시골 할 것 없이 채봉(綵棚)을 설치하여 불을 찬란하게 밝히고, 주과(酒果)와 음악·가무백희(歌舞百戲)로 대축연(大祝宴)을 베풀어 제불(諸佛)과 천지신명(天地神明)을 즐겁게 함으로써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하던 제전이다. 고려 태조 때부터 매년 정월 보름날에 행하여지다가 현종 1년(1010)부터는 음력 2월 15일로 변경되었다. 공민왕 1년(1352)부터는 4월 초 파일에 궁중에서 연등회를 열어 궐내에서 100명의 승려에게 공양하였는데, 이 풍습은 조선시대에 전승되어 건국 초부터 연등회를 열었다(두산백과사전).

연등회에서는 14일 오후 왕이 봉은사에 행차하여 태조의 영정에 제사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궁궐에서 연등회 행사가 진행되는 중심 공간은 강안전이었다. 왕이 입장하여 인사를 받고 나면 백회잡기(百戲雜技)가 공연되었다. 인도로부터 서역을 거쳐 궁중오락으로 수입되어 점차 대중화된 것이었다. 고려 왕실은 백회잡기를 통해 일반 백성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참여를 유도하였다. 공연이 끝나면 왕은 봉은사로 행차하여 그곳에 모여진 태조의 영정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다. 봉은사에서 태조의 영정에 향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일은 고려 상원연등회만의 특징이었다. 이날 밤 궁궐에서는 등석연(燈石宴)이라는 잔치를 베풀어 관동놀이를 하였다. 등석연은 상원 연등회의 공식행사는 아니었지만 군신간의 격식을 벗어나 친목을 도모하기에는 효과적이었다.

등석연(燈石宴)에는 연등회를 위한 교방악(敎坊樂)이 연주되고 가부가 발표되고, 군신간에 등석시를 주고받았다. 군신은 만수배(萬壽杯)가 오가고 헌선도(獻仙桃)라는 음악과 춤이 연주되었다. 공식적인 국가의례의 성격을 강하게 지녀 전반적으로 매우 엄숙한 분위기였지만 밤에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날 밤만큼은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왕과 비빈들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등불을 켜 사원의 밤풍경을 구경했고 도로는 사람들로 혼잡하였다. 이날 등불은 위로는 왕실에서 아래로는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 소망을 담은 것이었다.

떠들썩한 밤이 지나고 15일 아침이 밝으면 궁궐에서는 연회가 벌어졌다. 모두 3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왕과 신하들이 차와 술, 음식을 서로 나누고, 왕은 신하들을 비롯해 약대나 산대(山臺, 가면극) 놀이꾼 등에 이르기까지 행사에 참석 한 사람들 모두에게 꽃과 봉약(封藥)·과일·술·음식을 하사하였다. 이 행사는 왕과 신하간의 상하위계와 질서를 확인하고 군신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한국역사연구회 2002).

4) 팔관회(八關會)

팔관회는 고려시대에 국가적으로 행한 의식으로 태조의 십훈요(十訓要) 제6항에 의하면 팔관회의 대상은 천령(天靈, 하느님)과 용신(龍神, 山川神靈)이었다. 고려의 역대 왕은 모두 이 팔관회를 열었으며, 이 고려민의 하느님 관념은 고려가 망할 때까지 이어졌다. 중경(中京)에서는 음력 11월에, 서경(西京)에서는 10월에 각각 팔관회를 열었으며, 이날은 등불을 밝히고 술과 다과 등을 베풀며 음악과 가무 등으로 군신이 같이 즐겼으며 천신(天神)을 위무하고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아울러 기원하였다. 『고려사』에 의하면 예식에는 소회일(小會日)과 대회일(大會日)이 있는데, 대회 전날인 소회에는 왕이 법왕사(法王寺)에 가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고 궁중 등에서는 하례를 받고 군신의 헌수(獻壽), 지방관의 축하 선물 봉정 및 가무백희(歌舞百戲)가 행해졌다고 한다. 이 의식은 고려 500년을 통하여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으나 고려 말기까지 국가의 최고 의식으로 계속되었다(두산백과사전).

연등회는 순수한 불교적인 행사였다면 팔관회는 연등회보다 공식적인 국가의례의 성격이 강했는데 팔관회의 진행(한국역사연구회 2002)은 다음과 같다.

‘전날인 13일에는 재상과 문무백관에서 악공에 이르기까지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사장인 의봉루(儀鳳樓) 앞마당 즉 구정(毬庭)에 모여 행사 진행과정을 연습했다. 팔관회 행사에 참여하는 신하와 외국사절들이 국왕에게 표문(表文, 왕에게 올리는 글)을 올리는 장소나 국왕에게 절을 올리는 장소는 태자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팔관회에서는 14, 15일 양일 모두 연회를 베풀어 신하들과 외국사신들로부터 조하를 받는 행사를 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다.

구정에 마련된 행사장은 찬방(饌房)과 다방(茶房)이 휘장을 동서에 각각 설치하고 큰 황룡기를 앞마당 양쪽에 꽂아두

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등회 행사장의 모습과 거의 흡사했다. 찬방과 다방이 설치된 것은 왕이 신하들로부터 조하를 받은 뒤 군신간에 술과 음식을 나누는 연회가 팔관회 행사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음식과 차를 준비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고, 황룡기를 꽂은 것은 고려가 천자국이라는 의식의 산물이었다. 14일 아침 무렵 의장대기 구정에 정렬하고 각종 일산·부채·위장들을 대관전(大觀殿)에서부터 의봉루 사이의 좌우에 늘어놓았다. 3천여 명의 의위사들이 가지각색의 화려한 깃발과 무기를 들고 왕이 행차하는 길을 따라 좌우로 도열함으로써 궁성 안은 화려하고 엄숙하기 그지없었다. 왕은 신하들의 인사를 받은 연등회 때에는 달리 왕만 의봉루에서 영전에 진현하여 팔관회 개최를 유훈으로 남긴 태조를 기렸다.

태조의 영전에 진현하는 행사가 끝나면 본 행사인 연회가 시작되었고, 연회가 끝나면 왕은 궁궐 동북쪽에 위치한 법왕사(法王寺)로 행차하였다. 법왕사에서는 고승들을 초빙하여 법회를 열고 불경을 설하여 부처의 가르침을 입어 민심이 편안하고 대외관계가 안정되기를 기원하였다.

14, 15양일에 열리는 연회에 앞서 신하들의 조하를 받았다. 14일은 중앙관리와 지방관리들이 조하를 올리고, 1일에는 외국인들의 조하를 받았다. 송나라 상인 대표 및 동·서번(東西番)과 탐라인들이 차례로 들어와 절하고 무릎을 꿇고 예물목록을 진상하였다. 왕은 이들에게 자리를 앉아 풍악을 관람할 것을 허락하고 술과 음식을 선사하도록 하였다.

조하의식이 끝나면 연회가 열렸다. 주악이 연주되면 왕은 가운데 팔관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술·약·과실·꽃·음식을 하사하였다. 연회가 시작되면 비단으로 만든 장막이 설치되고,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속에서 술·유밀과·꿀·유자 등 각종 과일과 음식들이 오고갔다.

팔관회의 연회식

연등회와 팔관회는 14일 소회일과 15일 대회일의 이틀간 진행되었다. 연등회와 팔관회에는 2,3천명의 의위사(儀衛士)들이 동원되었다. 자색·푸른 색 보상화 꽃무늬를 수놓은 화려한 의복과 갑옷을 갖춰 입고 비단보를 쓰고, 칼·활 등 각종 무기류와 깃발, 일산 등 의식용 기물들을 든 모습은 그 규모만으로도 굉장한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풍악소리는 축제 분위기를 고조하였다(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려사』 지예(禮)에 의하면 해마다 중동(仲冬 음력11월)에 팔관회의 의식이 있었는데 이때에는 굉장한 식장을 마련하여 왕이 왕자와 백관을 출어하여 진차, 진식 등의 조하(朝賀)를 『고려사』 열전 이순우 조에 의하면 그의 상소문에 “근래에 팔관회로 인하여 백성들의 유우에서 유즙을 짜서 소략(酥酪)을 만들고 있다”고 하였으니 팔관회 연회에 소략이 쓰였음을 알 수 있

다. 정종(靖宗) 7년(1041)에 왕이 팔관회에 포를 하사라고 있다. 본디 포는 고기를 건조한 것인데 여기서는 고기뿐 아니라 일반 찬품을 가리킨다. 그리고 다식이나 유밀과가 팔관회의 연회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못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성우 1978).

연등회와 팔관회의 행사준비와 경비를 국가와 왕실에서만 부담한 것은 아니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외에 상당한 액수가 개인이나 기관에서 연출되었다. 연등회의 경우 백료(白寮)와 군부(軍府)가 부서별로 과상(果床)을 차리고 복장을 갖추었는데, 서로 화려하게 하려고 경쟁했기 때문에 그 폐해가 컸다. 또한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팔관회의 연회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는데 문화록사(門下錄事)와 후당관(後堂官)이 팔관회 연회의 비용을 내어 성대하게 치르는 것이 상례였다. 이들은 연등회 때에도 연회비용을 내고 공궤(供饋)도 담당했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필요했고, 이는 결국 폐정의 한 원인이 되었다(한국역사연구회 2002).

4. 고려시대의 궁중 식생활 담당관아

고려 시대의 관직과 관아에 대하여 『고려사』 식화지(食貨志)와 백관지(百官志)와 관련기사를 중심으로 고려왕실의 식생활을 담당 관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내장택(內莊宅)

고려 때 왕실 소유의 논밭과 궁중의 양식을 관리하던 관아이다. 문종 때에 사(使) 1명은 3품 이상 관원을, 부사(副使)는 5품 이상 관원을 임명하기로 하였으며, 판관은 2명으로 하되(이상은 모두) 갑과 권무 관직으로 정하였다. 이숙은 기사 4명, 기관 1명, 산사 1명을 두었다. 충선왕 때에 내장택의 사업을 상식국(尙食局)에서 관할하게 하였다.

2) 상식국(尙食局)

왕실이 어찬에 올리는 찬수를 관장하는 관아로 가장 먼저 생긴 것은 목종 조(997-1008)에 설치한 상식국(尙食局)이다. 상식국에는 봉어(奉御), 직장(直長), 식의(食醫)의 관직이 있었고, 문종이 봉어는 1명 정6품으로, 직장은 2명 정7품으로, 식의는 2명 정9품으로 정하였다. 충렬왕 34년(1307)에 상식국을 사선서(司膳署)로 고쳤다.

3) 사선서(司膳署)

사선서는 ‘장공선수(掌供膳羞)’라 하여 왕실이 선수(膳羞), 육류를 위시한 반찬들)지공을 가장 오랫동안 관장하였다. 충렬왕 때 상식국을 사선서로 고치고 어주(御廚), 별주(別廚),

영송(迎送)을 여기에다 합치고 제점(提點) 1명을 겸임 관직으로 두었으며 그 품계는 정 5품으로 하였다. 영(令)은 3명으로 하고 그 중 하나는 겸임 관직으로 하였으며 그 품계는 정 5품으로 하였다. 그 중 하나는 겸임 관직으로 하였으며 품계는 정 6품으로 하였고, 직장(直長)은 3명 정 7품으로, 부직장(副直長)은 3명 정 8품으로 하였다. 그 후 제점, 승, 부직장은 폐지하고 영(令)은 정 6품으로 낮추었으며, 다시 식의(食醫)를 두고 그 품계는 정 9품으로 하였다.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상식국(尙食局)으로 이름을 고치고 영(令)을 봉어(奉御)로 고쳤고 직장과 식의(食醫)는 이전대로 두었다. 동 11년에 사선서(司膳署)로 다시 고치고 봉어는 영으로 고쳤다. 동 18년에는 다시 상식국으로 이름을 고치고, 또 봉어라는 관직 이름도 다시 쓰게 하였다. 동 21년(1372)에 다시 사선서로 고치고, 영이란 벼슬 이름을 썼다. 이속은 문종이 서령사(書令史) 4명, 기관 2명, 산사(算士) 2명, 잡로(雜路) 8명을 두었다.

사선서가 영송(迎送)도 맡았는데 이는 영송도감(迎送都監)을 말하는 것으로 사신 영접과 전송을 담당한 관부로서 외국 사신 접대도 함께 담당하게 되었다.

4) 선관서(膳官署)

사연(祀宴, 제사와 연회)의 찬선(饌膳, 음식물)을 공급하는 사무를 맡는다. 곧 각종 제사와 연회의 찬수를 담당하였다. 목종 때에 대관서(大官署)가 있었고 여기에 영(令)이 있었다. 문종 때에 영은 2명 종 7품으로, 승(丞)은 4명 종 8품으로 정하였다.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선관서로 고치고 사선서에 속하게 하였으며 정원과 품계는 그전과 같이 하였다. 공민왕 5년에 다시 대관서로 고치고, 동 11년에는 다시 선관서로 고쳤으며, 동 18년에는 또다시 대관서로, 동 22년에는 한번 더 선관서로 고쳤다. 이속은 문종이 사(史) 6명, 기관 2명, 산사 1명을 두었다.

5) 요물고(料物庫)

궁중에서 사용할 '어름(御糜, 고려때 나라의 대제(大祭)에 쓸 서직(黍稷)을 간직하여 두던 곳집)과 미곡(米穀)'을 관장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본래 비용사(備用司)라 칭하였는데, 충선왕 3년(1311)에 요물고로 개칭하였고, 종 5품의 사(使)와 종 6품의 부사(副使), 종 8품의 주부(注簿)를 두었다.

우왕 14년(1388) 창왕의 즉위 교서에 요물고 소속 360장·처의 전지 중 선왕대에 사원에 시납한 것을 환수하라'고 하였으니(고려사 식화지), 요물고의 장·처는 많은 부분이 내장택의 장·처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송수환 1998).

원래 내장택(內莊宅)은 고려 초부터 왕실 소유의 논밭과 궁중의 양식을 관리하던 관아로 상식국 관할이었다. 고려 후기에는 왕실의 선수(膳羞)는 내장택·내원서 등에서 관장하였다. 내장택에는 장(庄)·처(處)가 소속되어 있다. 즉 고려시대에는 왕실이 소비하는 미곡은 내장택·요물고가 담당하였던 것이다.

6) 사온서(司醞署)

궁중에서 쓰이는 주례(酒禮, 술과 감주 등)를 빚어서 공급하는 일을 맡는다. 원래 문종 때 양온서(良醞署)가 생겼고 관제를 정하기를 영(令)은 2명 정 8품으로, 승(丞)은 2명 정 9품으로 하였다. 숙종 3년에 다시 양온서로 고쳤다.

충렬왕 5년에 선송주색(宣送酒色)을 폐지하여 본 서(양온서)에다 합치고 참상 별감(參上別監), 참외 별감(參外別監) 각각 1명을 더 두었다. 동 34년에 충선왕이 사온서로 고치고 제점(提點) 3명을 겸임 관직으로 하며 그 품계는 정 5품으로 하였고 영(令)은 이전과 같이 2명으로 하되 그중 하나는 겸임 관직으로 하고 또 정 5품으로 올랐다. 승(丞)도 그전처럼 2명으로 하되 그 중 하나는 겸임 관직으로 하고 또 정 6품으로 올렸으며, 새로 정 7품의 직장(直長) 1명과 정 8품의 부직장(副直長) 1명을 두었다. 그 후에 제점은 없애고 영은 정 6품으로, 승은 정 9품으로 각각 품계를 낮추었고 직장과 부직장은 이전과 같이 하였다.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양온서로 고치고, 또 영은 5품, 승은 정 6품으로 승격시켰다가 11년에는 다시 사온서로 이름을 고치고, 그 관원(員吏)은 고치지 않고 두었다. 동 18년에는 또다시 양온서로, 또 동 21년에는 다시 사온서로 고쳤다. 이속은 문종이 사(史) 6명, 기관 2명을 두었다.

7) 내원서(內園署)

내원서는 여러 원원(苑園) 즉 왕실의 동산(園苑)에 관한 일을 맡아본다. 문종 때에 종 7품의 영 2명과 종 8품의 승 2명을 두었다. 충렬왕 34년에 사선서(司膳署)의 관할 하에 두고 승(丞)의 정원을 4명으로 늘렸다. 이속은 문종이 사 4명, 기관 2명, 산사 1명을 두었다.

Ⅲ. 결 론

고려시대의 식생활은 삼국시대에 자리잡은 식생활 문화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통일 신라는 보다 화려하고 격조 있는 식생활 문화를 전개되었다. 고려는 초기부터 양곡 증산에 주력하였고, 한편으로 불교를 국교로 선포하여 숭불 환경에서 육식이 절제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병과류와 음차의 풍습이 성

행하였는데, 특히 병과류는 연등회, 팔관회 등 불사를 위한 국가 행사와 혼례, 각종 잔치의 필수 음식으로 숭상되어서 조리기술은 고도로 발달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왕이 솔선하여 육식을 삼가했다. 『고려도경』에 중국의 사신대접을 위하여 도살을 하는 법이 나오는데 도살법이 아주 서툴렀다. 중기 이후에는 원나라의 영향으로 육식 선호 풍조가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궁중에서는 여름철에 얼음을 저장해 두었다가 신하들에게 정기적으로 배급하는 제도가 있었다. 연회나 다례가 발달하면서 자기의 품질이 크게 진보하고 특히 고려에서 독창적인 상감청자를 만들어냈다.

고려 시대 궁중의 연회는 대부분 신하를 위하여 왕이 베푸는 잔치인데 설행 연유는 왕의 즉위, 전쟁에서의 승리, 왕손 탄생, 왕의 탄일 등의 축하 등이고, 장소는 정전(正殿)이나 천덕전, 건덕전, 청연각 등에서 베풀었고, 때로는 서경(西京)이나 지방에 거둥하여 열기도 하였다. 그리고 송나라나 탐라 등에서 온 사신이나 상인을 대접하는 잔치도 개최하였고, 왕이 절에 거둥하거나 연등회에 참석하여 베풀기도 하였다. 고려 조의 연회는 초기부터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고르게 개최되었다.

고려시대의 귀족들도 주례(酒禮)를 중히 여기며, 특히 성례(盛禮)를 좋아하여 호화로운 연회를 베풀기도 하였다. 그리고 귀족들과 서민들이 연회나 행사에 유밀과와 우유 등의 사치한 음식의 유행이 지나친 소비성향을 조장하여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다.

궁중의 국가적 의례로 제례와 다례, 연등회, 팔관회 등이 들 수 있는데, 이 때 음식과 술, 차 등을 올리는 절차가 있었다. 왕가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종묘의 제사이다. 『고려서』에 길례(吉禮) 대사(大祀)태묘(太廟)조에 나오는 제사식이 자세히 나온다. 가례 중 다례는 상원일이나 연등일의 잔치에는 궁중의 다방(茶房)에서 과(果)를 차려 왕좌 앞으로 올렸다. 중추 팔관회의 잔치에서도 다방에서 다과상(果案)을 차려 왕의 앞으로 올렸다. 다례 때 왕께 군신이 왕에게 헌수를 올리고, 그 사이에 주악, 진차(進茶), 진식(進食)이 이어진다.

연등회(燃燈會)는 고려 때부터 국가적으로 벌인 불교 법회(法會)로 왕궁·서울·시골 할 것 없이 전국적 규모의 대축연(大祝宴)으로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하던 제전이었다. 팔관회는 국가 의식으로 대상은 천령(天靈)과 용신(龍神)이었다. 중경(中京)에서는 음력 11월에, 서경(西京)에서는 10월에 각각 팔관회를 열었으며, 이날은 등불을 밝히고 술과 다과 등을 베풀며 음악과 가무 등으로 군신이 같이 즐겼으며 천신(天神)을 위무하고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아울러

기원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왕실의 식생활을 맡는 관청으로 요물고(料物庫)를 두어 왕실의 식량 조달을, 사선서(司膳署)는 각종 반찬을, 사온서(司醞署)는 술과 단술을 담당하였다. 초기에는 내장택(內莊宅) 고려 때 왕실 소유의 논밭과 궁중의 양식을 관리하였고, 왕실이 어찬에 올리는 찬수를 관장하는 관아로 상식국(尙食局)이 있었는데 봉어(奉御), 직장(直長), 식의(食醫)의 관직이 있었고 후에 사선서로 고쳤다. 선관서(膳官署)는 각종 제사와 연회의 찬수를 담당하였다.

IV. 문헌

- 김창현(1999) : 고려시대 개경의 궁궐, 사학연구 57, 한국사학회.
- 김창현(2001) : 고려 서경의 성곽과 궁궐,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 김창현(2002a) : 고려시대 개경황성의 구조, 사학연구 67, 한국사학회.
- 김창현(2002b) : 고려시대 개경 궁성 안 건물의 배치와 의미, 한국사연구 117, 한국사연구회.
- 김형우(1994) : 고려시대 연등회 연구, 국사관논총 55, 국사편찬위원회.
- 두산백과사전, 두산동아 서울.
- 송수환(1998) : 조선 전기의 사옹원, 한국사학보 3(4), 고려사학회, 123쪽.
- 안지원(1999) : 고려 연등회의 기원과 성립,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 윤서석(1999) :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역사, 신평출판사 서울.
- 이성우(1978) : 고려 이전 한국식생활 연구. 향문사 서울.
- 한국역사연구회(2002) : 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 비평사 서울.

<고문헌>

- 『고려사』 권30, 世家 충렬왕 3년 2월.
- 『고려사』 권77, 食貨志.
- 『고려사』 고려사 권77, 百官志.
- 『고려사절요』 권16, 고종 33년.
- 『증보문헌비고』 제76권, 연례(饌禮) 고려.
- 서궁 원저(1977) : 국역 『고려도경』, 민족문화추진회 서울